

PEOPLE

찾아가는 현장 | 내 삶의 든든한 이웃
서울특별시 노원구

앞서가는 사람들 | 재정의 달인
전라북도청 김철모
전주의 멋 & 맛 & 소리

앞서가는 현장 찾아가다!

1995년 6월 실시된 지자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세계 상위권 수준의 지방자치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런 평가는 하루 24시간 열심히 일하며 지방자치를 꽃 피우고 있는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현장을 찾아갔다.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마음을 달래주는 내 삶의 든든한 이웃 서울특별시 노원구



PEOPLE

찾아가는 현장

재정자립도 하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령자가 밀집되어 있는 곳. 이곳 노원구는 누가 봐도 구정살림 꾸리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의 봄바람은 향긋했고, 거리 사람들의 표정은 훈훈하고 넉넉했다. 또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김성환 구청장은 환하게 웃으며 자신있게 행복한 노원을 말하고 있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자.

대담 ■ 박길성(한국행정DB센터 소장) 사진 ■ 허중학 기자

어느새 취임하신지 2년이 다 되어가네요. 감회가 어떠신지요?

● 세월이 참 쏠살같죠? 제가 처음 구청장에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할 무렵에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위해 ‘편안한 의자와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청을 들어설 때 보시면 구청 벽에 ‘내 삶에 든든한 이웃 노원구청’이란 슬로건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나와 내 이웃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키타리아저씨 같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든든한 이웃이 되겠다는 마음을 간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유독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노원구에는 송파구에 이어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61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 또한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기초 생활수급자, 노령연금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자치구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도 가장 많은가요?

● 예, 등록장애인이 서울에서 가장 많습니다. 탈북자도 두 번째로 많고, 송파구보다 인구는 적는데 학생 수는 많습니다. 이렇게 교육과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 우리 구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늘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의 특성 때문이겠군요.

●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 422,300백만 원 대비 54.6%인 230,576백만 원이 복지예산이구요. 이중 96.3%가 구비 부담금인 의무경비입

니다. 이처럼 복지에산 중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구비 부담금이 증가하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전년도에 27.7%에서 금년도에는 22.7%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구비를 부담하는 복지사업은 매년 늘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복지사업 중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율경비는 3.7% 밖에 안 되어서 자체 복지사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되고 있는 0세~2세 무상보육은 금년도 예산편성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람에 우리구는 연간 52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 자체 재원은 조금씩 늘는데 비해 재정 수요는 빨리 증가해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받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지난 해 노원구가 난방비를 11%까지 인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난방비를 인하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었나요?

● 서민들의 삶에 겨울이 더 고달프죠. 그중 난방비가 가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데요. 노원구에는 22만 세대가 있는데 그중 9만6천 세대가 지역난방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원구에서 쓰는 지역난방이 따로 있고 강남구에서 쓰는 지역난방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의 난방비 요금 실태를 자체 조사해 보니 강남구의 난방비에 비해 약 17%정도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사는 노원구의 지역 난방비가 비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1일 ‘지역난방 개선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 난방비 실태를 조사·분석했구요. 그에 따른 문

제점 및 개선 대책을 서울시와 SH공사에 집요하게 제시해 결국 난방비 인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2011년부터 당장 강남의 지역난방 수준으로 11% 인하했구요. 일반아파트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난방비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난방을 잘 해도 단열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노후된 임대아파트에 대해 사시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덕분에 겨울에 지역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전기장판·전기난로 하나로 겨울을 나셨던 분들이 지난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게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시니까 지자체 재정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지방광역정부와 기초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학자들은 지방세의 비율과 국세의 비율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조세체계는 국가의 역할에 맞게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일종의 내셔널미니멈이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수급권제도는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간에 똑같이 그 재원 배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안은 100%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겠죠. 광역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서울시에 사는 사람은 같은 수급권자라도 주거비나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그 격차만큼은 광역시가 부담하는 게 맞을 거구요. 그럼 자치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치구는 그 사람들의 자활이나 자립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 같은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배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안에

따라 예산배분이 되는 게 아니라 매칭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중앙정부와 광역시와 자치구가 나눕니다. 이렇게 배분을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방재정이 이렇다저렇다 백날 얘기해본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엔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재정과 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를 주신 것 같네요. 듣자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노원’이라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계시다구요. 어떤 건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원구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노원구의 특성 때문에 복지정책이 다른 어느 곳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에서 복지를 총괄하는데요. 노원구 인구가 61만 명으로 제주도보다 많다보니 구에서 복지를 총괄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일선 동에서 복지업무를 추진토록 하는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되어있으면 별 필요가 없을텐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4대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권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가 많이 있구요. 이 문제를 국가제도 차원에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테니 구 차원에서라도 해결하기위해 정책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이웃이라는 그물을 하나 더 만들어 보자는 게 그 시작입니다.

洞복지허브화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더라도 구청이나 동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모두 해결하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도와줘야 하지만 법적으로 자격이 안 돼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어 도



노원구의 틈새계층 및 소외 계층을 발굴하는 보건복지도우미

주민의 문제의 원인과 요구를 파악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휴먼서비스



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여 집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살과 출산율 문제인데요. 출산율 문제는 자치구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자살문제부터 접근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 편이거든요.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자는 취지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노원구를 행복공동체로 성장시키는 '행복한 노원'을 만드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최전선에서 가장 힘쓰고 계신 분들을 꼽자면 복지도우미 분들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통장님들은 선거 동원용이었고 최근에는 행정의 말단 홍보기관이었는데요. 그분들이 복지도우미로 역할을 바뀌어 일선에서 이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개는 동 주민센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 그렇게 전달 체계를 구체화하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높은

자살률과 저 출산율을 들었는데 이 중에서 굳이 자살 예방사업을 시작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 특별한 건 아니고 구청장하기 전 전임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에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 보고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 하고 싶은 것을 제안하라 해서 받아보니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구요. 광역단위 응급센터를 만들겠다는 정도랄까? 하는 수 없이 대통령께 보고도 못한 적이 있어요. 이후 여기 와보니 인구 10만 명당 노원구 자살률이 서울에서 7위인데, 숫자로 보면 제일 많더라고요. 이들에 한 명 풀이니 무척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라도 한번 해보자 한 겁니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에 기초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짰습니다. 지금 한 1년 반쯤 지나가는데 통계로도 자살률이 약 30% 줄었고 대신 상담률은 40배 증가 했습니다.

자살에 대한 예방책은 지방정부에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싶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는 결의를 다진 생명지킴이 위촉식

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 직접 실행을 해보니까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확충, 그러니까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금의 2~3배 정도로 올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해고노동자형 자살입니다. 이것은 구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급여의 확대 등을 통해서 해고된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때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책임져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직 후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망하고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이지만 중장년층 자살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중장년층 자살은 대개 생계형 자살이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국가가 외환위기 이후에 과도하게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하는 과정에 나타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

에 근거한 부분을 치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낮추게 하는 문제 해결이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 동전의 양면처럼 물려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보통 복지재단은 많습디다.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교육복지재단을 운영하신다구요. 좀 생소한 개념이라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처음에는 복지재단으로 할까했는데 교육을 추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선진국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출발선을 일치시켜 주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장학재단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가난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을 절약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

원, 이것도 구의 입장에서는 등한시하면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해보려는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출발선의 격차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 이것도 광의의 복지이고 가장 효율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통합했습니다.

‘행복한 노원’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난 후 변화랄까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 구청장이 된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에게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찾아오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의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청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려면 무엇보다 인력이 필요하겠죠. 인력을 충원하려면 막대한 인건비가 소요될 것이고,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우리구로서는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죠. 마른걸레를 짜듯 구청에 있는 기존 인력들을 재편해서 각 동별로 3명씩 충원하여 직접 찾아가 상담도 하고 도움도 드리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또 여기에 노원구 통·반장 설치조례를 개정해 지역 여건에 가장 밝은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위촉하여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동 복지협의회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유관기관과 ‘생명존중 정신의 실천을 통한 자살예방 상호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하는 모습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구청에서 해결방법을 찾아 도움을 드리고, 안타깝지만 제도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은 교육복지재단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제도상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제 희망이자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61만 노원구 지역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올해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든든한 이웃 노원구청이 되겠다’입니다. 이 과제를 제안한 것은 외환위기 이래 양극화가 커지고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고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강경 정책 때문에 저희 서민경제와 서민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라도 우리 구청과 복지도우미들이 든든한 백이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구정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는 꼴등일지 모르지만 행복복지수에서는 일등 할 자신이 있습니다. 구민들과 1,300명의 공무원들, 또 언제나 도움을 주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호 네트워킹하여 십시일반으로 기쁨도 나누는 것이 제가 바라는 행복한 정치이고 구민들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

현장에 맞는 예산운용시스템으로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린 전라북도청 예산과장 **김.철.모**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 분석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 선정



PEOPLE

앞서가는 사람들

지방재정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두가 재정위기, 재정건전성이다. 아껴야 잘 사는 시대는 지났다. 잘 써야 잘 사는 시대이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걸까? 더욱이 일개 가정의 살림살이도 아니고 자치단체라면 상황은 또 다르다. 이에 조직적으로 잘 쓰기의 모범을 보여주는 재정의 달인이 있어 찾아 나섰다. 이달의 “재정의 달인” 전라북도청 예산과 김철모 과장을 소개한다.

대담 ■ 박길성(한국행정DB센터 소장) 사진 ■ 허중학 기자

과장님의 소개를 겸해 공직이력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79년에 공직을 시작하였구요. 처음 면에 초임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정읍군청을 거쳐 88년 7월에 전북도에 부임하였습니다. 인사계장을 하다가 도청에 예산계장으로 부임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재정위기 등에 관심이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북형 상시예산편성시스템’이란 생소한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전북형이라 볼 수 있는데, 통상 과거의 예산이 예산순계에 맞추어 9~10월에 집중되고 나머지 시기에는 평이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반해 저희 전북도에서는 연중 1월부터 예산편성 이후까지 계속해서 상황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당해 연도에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년도에는 다시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차기연도에 편성하는데 환류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데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나름대로 시도하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처럼 체계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재정포럼은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하구요.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는 재정평가는 전북만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포럼의 운영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2월부터 매년 분기별로 한번씩 17차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각종 중앙제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이나 균특회계에서 광특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논리를 개발하다 보

면 예전에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여 지방으로 내려 보냈는데요, 지금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논리를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 예타사업(예비타당성사업)같은 것을 확정짓기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 예산편성에 실질적 주민의 편의와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존의 예산편성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었나요?

일반적으로 도 단위에서는 8월말에 지침을 시달하여 9~10월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라인을 타고 의회에 제출합니다. 반면 우리 전북도는 예산편성 전 단계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된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의 각종 간담회 및 큰 범주별로 나누어 다음 년도 예산에 대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도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과거, 부서에서 집계하고 단순히 전달하는 것과 달리 주민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충분히 토론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전북도의 경우 최적의 예산을 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시 예산편성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도입 시기는 언제였나요?

시도는 여러 번 했었지만 실효를 보지 못하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인 상시예산시스템을 시작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수입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국세만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지방에서는 절대적인 재원을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도청 전체예산의 2/3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중앙부처의 실령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에 맞는 실령제를 개발한 것이 정책별실령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시기별 각종 사안을 재정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 도민들에게 도 재정여건, 예산제도 이해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형 상시예산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시스템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며, 세번째는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입니다.

먼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재정포럼을 운영합니다. 평가에서도 민간전문가를 투입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민간전문가 참여의 큰 축이라 하겠습니다.

중앙보조사업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도의 경우 시군에서 필요한 물량을 조사해서 중앙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 왔는데요. 부족한 지방재원 중에 중앙보조사업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실국별로 토론을 거쳐 최종물량을 확정하여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중앙에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정과 밀접하지 않은 예산이나 국고사업은 신청하지 않구요, 우리 도민의 복지라던가 우리 도의 성장 동력과 연계되는 사업 위주로 국고보조를 신청하는 등 예산을 전략적으로 짤 수 있는데, 이것이 중앙보조사업의 사전심사제입니다. 또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원해 주지만 해당 민간기관이나 대학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재정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제도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광역계정도 그렇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도민과의 소통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재정법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법제화되기 전부터 저희 전북에서는 2006년 현재의 지사님께서 오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국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이해당사자 간의 간담회를 통해 시행 방향을 설정하구요. 그러한 안들을 나누어 분야별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경

우에 따라 지사님께서 직접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도민 3,000세대를 대상으로 ARS를 실시하여 우리 도정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인지를 분야별로 모니터링합니다. 때문에 되도록 도민이 원하고, 도에서 가야 할 방향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꾸며보는 것이 연중예산편성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한 후 가시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것들이 모두 모아진 결과로 보이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 분석에서 전라북도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가 재정 운영을 잘 했다고 공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이런 시스템을 통해 지방채를 최소화해 우리 전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채무율이 낮은 순서로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저희 재정은 상당히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방행정이란 게 관에서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수용성입니다. 예산부서도 힘들었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자금이 다음 년도에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당연히 불만이 제기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여론수렴 과정 뿐만 아니라 사후 결과도 다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설득을 거듭하였습니다.


사실 외적 반발도 심했지만 1차적으로 우리 내부의 반발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평가를 통해서 잘라야 하는 것은 부서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또 새로운 대체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구요.

쉽지 않은 시스템을 개발·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개혁이라는 게 예산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된 사업부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휘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예산부서가 예산 개혁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최종 편성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혁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더욱 확장되어 저희 「지방재정」을 통해 전국에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한국의 지방자치가 아직은 성숙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두 지방정부만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세제개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지방이 자생적으로 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재정운영에 대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앙의 시책이 따로, 광역정부의 시책이 따로, 기초자치단체의 시책 또한 따로 있다 보니 기초에서는 3개가 합쳐지면서 재원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주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고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업무만 관장합니다. 그러한 행정의 영역 분담이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을 알차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주

멋, 맛, 소리...
오감으로 유혹하는 도시

취재사진 허중하



한옥, 한지, 소리, 음식, 사상(思想)의 도시

전통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어 한국의 고풍을 느낄 수 있는 곳.
어디를 가도 상다리가 휘어지게 한상 가득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여기에 우리의 얼과 소리의 놀이판이 매년 펼쳐지는 곳, 전주.
한옥마을을 돌아 천년전주마실길을 산책하면 어느새 전주의 품미와 멋에 젖게 된다.



판소리의 본향(本鄕)인 전주는 과거의 전통을 이어온 한국 전통문화의 보고(寶庫)이자 후백제의 도읍지이며 조선왕조의 500년을 꽃피운 탕자리이다. 무엇보다 전주의 매력은 독특한 말씨에, 남의 집 녹슨 대문의 낙서와 기왓장에, 하다못해 거리에 구르는 돌맹이에도 천 년 역사의 숨결이 면면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때문에 전주를 제대로 돌아 보려면 시각, 청감, 미감, 후감, 촉감 오감을 총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가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전주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잘 알다시피 전라라는 어원이 전주와 나주에서 나왔을 정도로 전주는 과거 전라도의 중심 도시여서 주요한 유적들을 다수 만나볼 수 있다. 백제 건천의 숨결이 담긴 건천 성터와 조선시대 태조 어진이 모셔진 경기전이 자리하고 있고, 서울 춘추관, 충주, 성주와 함께 4대 사고 중에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전주는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드넓은 호남평야가 둘러싸고 있고 만경, 김제 평야를 가로질러 바다로 향하는 만경강을 끼고 있는 전주는 가히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풍요의 고장이라 할 만하다. 풍족한 식량 자원이 전주의 풍성한 음식문화의 맛을 낳았고, 풍성한 음식문화가 삶의 여유를 낳았으며, 다시 여유 있는 삶이 풍류를 부르며 소리와 멋을 내고, 한지의 서화를 부르며 기품을 낳았다. 이것들이 지금의 문화 도시 전주의 매력을 이루는 근간이 아닌가 싶다.

여행에 있어서 지역의 풍미가 물씬 느껴지는 맛깔난 음식은 여행의 큰 즐거움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그곳이 바로 전주라면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터. 전주여행은 문화유적과 한옥마을의 나지막한 돌담 풍경을 비롯해 명소를 잇는 거리 하나하나까지 전주시 그 자체가 조상의 일이 깃든 커다란 박물관의 전시장을 돌아보는 관람 코스와도 같다. 짧은 시간이라도 전주를 돌아볼 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곳을 둘러보려 뻘뻘한 일정을 잡기 보다는 천천히 멋과 맛을 즐기고 느끼는 시간으로 잡아 보면 어떨까 싶다.

전주여행의 1번지 한옥마을

느긋이 담장너머 시선을 돌려가도 좋다. 굽이 굽이 담장 길을 따라가다가 대문이 열린 곳이라면 주인인양 은근슬쩍 발길을 옮겨 봐도 좋을 것이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내 집 들여다 보듯 하나하나 익숙한 풍경들이지만, 타 도시에서는 이제 쉬이 볼 수 없는 풍경들이다.

전주시에 자리한 도심형 슬로시티 한옥마을은 1930년경 전주성곽을 해체한 일본인들이 전주객사가 있는 중앙동까지 상권을 넓혀오자 전주의 유림과 부호들이 이곳 교동, 풍남동 일대에 터를 잡으며 촌락을 형성하게 되었다. 근대 한옥마을로 지정된 이후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규제에 묶여 있다가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전주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탈바꿈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현재 전주한옥마을은 경기전을 포함하여 전통 한옥 700여 채가 자리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전주천을 두르며, 교동, 풍남동 일대에 형성된 한옥촌으로 그저 기와집들의 집단지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을 비롯하여 전통성당, 오목대, 전주향교가 자리하고 있고, 전통문화체험관과 박물관, 전통한옥숙박체험관 등 각종 문화시설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전주한옥마을에는 한옥숙박뿐만 아니라 다도, 공예, 전통소리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숙박체험관도 운영 중인데, 그중 백범 김구선생

1 태조 이성계를 비롯하여 세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순종의 위패와 어진이 모셔져 있는 경기전.

2 오목대로 오르는 전망대에서 본 한옥마을의 전경.

3 한옥마을의 담장길 사이로 다양한 체험관, 전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과 해공 신익희선생이 묵은 곳으로 유명한 학인당은 1908년 전통 건축기술로 지어진 대형 한옥으로 전라북도 민속자료 8호로 등재되어 있다. 인재 백낙중이 압록강, 오대산 등에서 가져온 목재로 왕정의 붕괴 후 궁중건축양식을 도입해 본채는 천장 2층 높이로 만들었으며, 건물 안쪽의 모든 문을 접어 열거나 들어 올려 열 수 있는 형태로 2년 6개월이나 걸려 공들여 만든 집이다. 원래는 99칸 대저택이었으나 지금은 축소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또, 미국인 전킨(W.M.Junkin)선교사의 교육 선교를 기념하기 위해 그가 머물던 시절인 1895년 당시 모습을 재현한 동락원과 조선의 마지막 황손인 이석씨가 거처했던 승광재를 비롯하여, 2008년 전통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원불교 교동 교당이 소유한 일원정사를 리모델링해 개원한 소담원이 본채와 사랑채 등 객실 8실을 갖추고 단전 주법과 예절교육, 다도, 요가 선출을 통한 명상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한옥마을에는 9곳의 전통한옥숙박체험관이 운영 중이며,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도 10여 개소가 된다. 2002년 개원한 전통술박물관은 호남 유일의 전통술전문박물관으로 일제강점기 주세법(1909년)에 의해 100년 간 맥이 끊겼었던 전통가양주의 맥을 이어가고자 건립되었다. 이곳에선 전통주 생산과정을 보고 맛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음주례의 재현을 통하여 올바른 주연(酒宴)문화를 배울 수도 있다. 전통





명품관과 한지관이 운영되는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전통 공예의 보존과 재창조를 위하여 건립된 공간으로 여기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또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외에도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세워진 동학혁명기념관과 전주를 '꽃심의 땅'으로 불렀던 <훈불>의 작가 최명희의 삶과 문학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전한 최명희문학관, 전라북도에서 출토된 고고유물을 비롯하여 불교미술품, 도자기, 금속공예, 서화, 민속자료 등 3만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전주박물관,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지 문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2007년 종이박물관에서 개명한 전주한지박물관도 둘러보면 좋을 듯하다. 전주한지박물관은 한지공예품, 한지 제작도구, 고서적, 고문서 등 한지 관련 유물을 상시 감상할 수 있는데, 운이 좋으면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에서 현대 한지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 볼 수도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공동 개최한 '한국관광의 별 12개'로 선정되었으며, 작년에는 '론리 플래닛'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인 여행안내서인 「미술백 가이드」로부터 진안 마이산, 고창 고인돌군과 함께 최고 평점인 별 3개씩을 받았다. 명실공히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최고의 여행지로 전주한옥마을이 인정받았다 하겠다.

잘 정돈 된 길과 그 길을 따라 줄지어 행렬을 이루는 담장과 한옥 길에는 전주의 멋과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발길을 유혹한다. 햇살 가득한 날 나지막한 한옥 담장 골목길을 걷다 보면 오래전 잃어버리고 잊고 지내던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아 진정한 슬로시티의 참 의미를 이곳에서 찾게 된다.

경기전

한옥마을의 중심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경기전은 조선을 건국한 전주 이씨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기 위해 태종 10년(1410년)에 창건된 건물이다. 태조를 비롯하여 세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순종의 위패와 어진이 모셔져 있으며, 어진을 모신 본전과 전주 이씨 시조인 이한공의 위패를 봉안한 조경묘, 조선의 여러 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고, 예종의 태실을 묻은 태실 등의 유적이 있다. 본전의 주변에는 모사본인 태조 어진을 제자리에 모시기를 희망하는 전주시민의 바람처럼 대숲이 시원스레 흔들리며 풍광을 더한다. 어진은 이곳 외에도 완산(현.전주 완산구)·계림·평양 세 곳에 모시고 있다(사적 제 339호).

전동성당

전동성당은 한옥마을 전통미에 색다른 이국적 양식의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동성당은 한국천주교의 본산인 명동성당(1898년

TIP 전주한옥마을 관광코스

1코스

한옥마을 단숨에 보는 코스

전동성당-경기전-교동아트센터-최명희문학관-최명희길-은행로(600년된 은행나무, 실개천)-한방문화센터-공예품전시관-전통한지원-전통술박물관-공예공방촌 지담-한옥생활체험관

2코스

골목과 체험이 있는 코스

오목대-공예품전시관-태조로-전동성당-목판서화체험관-경기전-교동아트센터-최명희문학관-은행로(600년된 은행나무, 실개천)-한방문화센터-민속길-전통한지원-승광재-전통술박물관-공예공방촌 지담-한옥생활체험관

3코스

역사와 사색이 있는 코스

풍남문-전동성당-경기전-공예품전시관-오목대-전주향교-향교길-학인당-강암서예관

4코스

한옥마을 및 주변 연계관광 코스

풍남문-전동성당-경기전-전주한옥마을-전주천-자연생태박물관-치명자산 성지-권현왕궁터

관련 웹사이트

전주시청 www.jeonju.go.kr
전주한옥생활체험관 www.jjhanok.com
전주전통문화센터 www.jt.or.kr
전통술박물관 www.urisul.net
전주도립국악원 www.kukakwon.or.kr
전주공예품전시관 www.omokdae.com
공예공방촌 지담 www.jidam.com

문의전화

전주시청 문화관광과 063)281-5044~6
전주한옥마을안내소 063)282-1330
전주역안내소 063)281-2024
고속터미널안내소 063)281-2739
경기전 안내소 063)287-1330

대중교통

전주역 063)243-7788
전주 고속터미널 063)277-1572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063)272-0109
웅산역-전주역 |첫차 06:58, 막차 22:57, 1시간 간격 운행
고속버스(서울고속터미널-전주터미널) |첫차 06:00, 막차 23:00, 10분 간격 운행

TIP 한옥마을 전통숙박체험

한옥생활체험관

조선시대 양반집 형태로 숙박 체험을 비롯하여, 전통문화(공예, 혼례, 음식, 음식) 체험을 즐길 수 있다. T. 063-287-6300

양사재

양사재는 향교의 부속 건물로 유생들을 교육했던 공간으로 현재, 한옥민박과 다례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T. 063-282-4959

승광재

조선의 마지막 황손인 이석씨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황실다례, 황실예법 등 조선왕실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민박. T. 063-284-2323

소담원

단전 주법과 예절교육, 다도, 요가 선출을 통한 명상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객실 8실을 갖춘 한옥숙박체험시설.

T. 063-284-5594

학인당

백범 김구선생이 묵은 곳으로 유명한 이곳은 1908년 지어진 전통 건축기술로 지어진 대형한옥으로 전라북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 명상과 다도체험도 가능하다.

T. 063-284-9929

아세현

한국음악체험교육관인 이곳은 숙박은 물론 판소리, 가야금, 가야금병창 등 전통음악을 체험하고 연주, 감상할 수 있는 테마한옥민박. T. 063-287-1677

동락원

미국선교사인 전킨(W.M. Junkin) 선교사의 교육선교를 기념하기 위해 그가 머물던 시절의 1895년 당시의 모습을 재현, 전주비빔밥, 전통예절 체험을 할 수 있다. T. 063-287-2040

풍남원

200여 평 규모에 안채와 정자, 정원으로 구성되어 전통다도체험 공간으로 한옥체험을 할 수 있다. T. 063-286-7673

1 수령 4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진 전주향교.

2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큰 포부를 담아 <대풍가>를 불렀다는 오목대.

3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혼합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전동성당.



완공)과 비슷한 시기인 1914년 완공하였다. 명동성당이 고딕 양식의 건물인데 비하여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혼합한 건물로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양 양식의 건물로 손꼽는다. 전주의 4대문의 하나인 풍남문(남문)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이 신해박해(1791년) 때에 처형당했던 그 자리에 세워졌으며, 풍남문의 성벽을 헐어 낸 돌로 주춧돌을 세웠다고 한다. 내부에는 순교자들을 채색화한 스테인드글라스가 화려함을 더 한다(사적 제 288호).

오목대와 이목대

大風起兮雲飛揚 대풍기혜운비양
큰 바람이 일어나서 구름이 날아오르다

威加海內兮歸故鄉 위가하내회귀고향
위세가 해내에 떨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安得猛士兮守四方 안득맹사하세수사방
어디서 옹성한 무사를 얻어 사방을 지키게 할까
- 대풍가(태조 이성계)

고려 말 우왕6년(1380년) 이성계가 운봉 황산(隍山)에서 왜구를 섬멸하고(황산대첩)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조들이 살았던 전주에 들러 종친들과 잔치를 베풀며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큰 포부를 담아 <대풍가>를 부른 곳이

다. 동사관으로 동행하였던 정몽주가 이성계의 내심을 간파하고 한달음에 말을 달려 남고성 만경대에 올라 임금이 계신 북쪽을 바라보며 우곡시 <망향가>를 읊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왕조가 몰락할 무렵 1900년(광무 4년) 고종황제가 태조 이성계가 머무른 곳을 뜻하는 '태조고황제주필유지'라는 어필을 비에 봉안하였으나, 기울어가는 국운을 막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과거 전동성당이 들어설려 하였으나 지방유림의 거센 반발로 인해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특히 오목대에 오르는 길은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지붕의 선들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이기도 하다.

전주향교

유교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에 설립된 전주향교는 고려시대에 창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기록은 없다. 현재 건물은 조선 선조36년(1603년)에 건립, 공자를 주벽으로 중국의 유학자 7인과 우리나라 18현 등 총 51인을 배향하고 있다. 이곳은 특히 영화 <YMCA야구단>의 YMCA 건물로 등장했으며 드라마 <성균관스캔들>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대성전을 비롯한 유생들을 가르치는 명륜당과 만학루가 있다. 또한 4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어 가을전경이 아름답다. 🌳



맛

오감으로 즐기는 전주의 음식

과거 여행이 볼거리 중심의 여행이었다면 요즘은 먹거리가 여행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주한정식, 전주비빔밥, 전주콩나물국밥 등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음식이 풍성한 전주는 그 어느 도시보다 음식의 명향(名鄕)이라 할 만하다. 음식 맛을 좌우한다는 불 맛, 손맛과 바람, 온도, 습도가 최적인 환경이 만들어내는 전주의 장맛과 서해의 발효음식인 젓갈이 만나 전주만의 독특한 가정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전주 음식문화의 특징을 하나 더 들자면 큰상에 상다리가 휘어질 듯 다 올리지 못할 정도로 넉넉한 반찬 수를 꼽을 수 있겠다. 바로 전주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음식문화인데 전주 사람들의 후하고 넉넉한 인심이야말로 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다시 찾아오게 하는 최고의 상품이 아닐까 싶다.



전주비빔밥정식 2인 상차림(1인 20,000원)

전주한정식과 백반

탕, 찌개, 나물류와 젓갈 등 30여 가지가 한상 가득 차려진 밥상은 전주가 아니라면 과연 이 가격에 과연 어디서 맛볼 수 있을까 싶게 한다. 서해의 신선하고 풍부한 해산물과 주변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곡식, 여기에 산간지대의 각종 산나물들이 전주 음식의 대표 식재료이다. 이런 천혜의 자연이 전주 가정식 백반의 기반이 되었고 '전주한정식'이라는 음식 문화로 꽃피우게 되었다.

전주비빔밥

늦석 대접에 담긴 흰밥과 그 위에 그림처럼 올려진 선홍빛 육회, 아삭한 콩나물, 암전하게 부친 황백지단 등을 보고 있노라면 숟가락으로 휘저어 모양이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마저 든다. 식당마다 사골 국물을 우려내 밥을 짓고 늦그릇에 가지런히 담아 비벼내는 전통 방식은 전주비빔밥의 명맥을 이어온 장인정신의 산물이기도하다. 음식을 담을 때도 오행과 색의 조화를 고려해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한 그릇에 담아내고 있다. 이제 세계 속의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밥이 으깨어지지 않는다.



전주콩나물국밥과 모주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술이 덜 깬 아침에 뜨거운 콩나물국을 들이켜며 '시원하다'를 연발하는 건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정서일 것이다. 뚝배기에 밥과 콩나물과 다진 김치에 갖은 양념을 곁들여 끓여 내는 콩나물국밥은 담백하고 시원하다. 전주콩나물국밥은 콩나물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이 피로회복과 알코올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는 전주의 또 다른 대표음식이다. 전주의 콩나물국밥은 막걸리에 계피, 생강, 대추, 찹, 인삼

등의 약재에 설탕을 넣고 끓인 속풀이 해장술 모주와 먹으면 제격이다.

전주막걸리 골목

전주막걸리 골목에서 상을 받으면 먼저 푸짐한 안주와 과연 이 가격에 마진이 남을까 하는 생각이 교차한다. 푸짐한 안주에 주인의 인심이 합쳐진 전주 막걸리 골목의 상차림은 애주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막걸리 한 주전자 값을 내면 그에 따른 기본안주들이 한 상을 가득 채우고, 한 주전자를 추가할 때마다 다시 다른 안주들로 상이 채워진다. 전라도 음식의 힘은 주인이 직접 한다는 데 있다. 한 막걸리집 사장님의 얘기처럼 이곳 막걸리 골목의 주안상도 주인의 성향에 따라 사뭇 다르다.

이런 막걸리 골목의 특이한 문화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의 정읍집이 시초인데 7~8년 전에 지금의 골목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외지인이 아니면 유지가 힘들 정도라지만 삼천동, 서신동, 송천동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막걸리골목을 이루며 성행하고 있다. 🍷



삼천동막걸리골목의 세 주전자 상차림과 분위기
(한 주전자 17,000원 추가시 15,000원)

TIP

• 전라도음식이야기(한정식·전주비빔밥 전문점)

2007년 전라북도 향토음식 품평회 대상과 2010년 농수산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는 한정식전문점, 전라도음식이야기의 김관수사장은 음식 맛은 불의 것이며, 음식은 혼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많은 프랜차이즈가 등장하면서 전주 음식업의 상황도 예전 같지 않아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전주비빔밥과 전주 한정식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전주시민들과 운영자의 남다른 소명의식이 있기에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30년 음식점 경영 경력에 지금 이 자리에서만 17년째라는 김사장은 전라도음식이야기가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음식을 차려낼 수 있는 것은 주변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함과 주인인 자신이 모든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부분이라고 솔직하게 털어 놓는다.

4인기준 상차림(1인 40,000원 부터) T.063)244-4477



• 댕이 콩나물국밥

벌들이 날 때 나는 의성어를 간판으로 내건 댕이집은 벌들이 댕댕 날듯이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든다. 이곳 댕이 콩나물국밥집은 입소



문으로 인해 주말이면 손님의 절반 정도가 외지인들이며, 요즘은 일본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오는 수란은 남부시장만의 스타일로 휘휘저어 김과 함께 먹으면 일품이다. 25년을 한자리에서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댕이집은 무엇보다도 모든 음식이 리필이 가능할 정도로 넉넉한 인심을 자랑한다. 전날 막걸리 골목에서 음주 후 먹는 콩나물국밥 맛은 전날의 숙취를 잊게 해 주고, 따끈하고 달콤한 모주 한 잔은 속풀이 해장술로도 그만이다. 식사 후 후식으로 뽕 튀밥도 맛볼 수 있다.

전주 댕이 콩나물국밥과 모주(1인 5,000원, 모주 한 잔 1,000원)
T.063)287-6979



연중 다양한 축제가 유혹하는 도시

맛과 소리, 전통과 현대 예술이 어우러져 일 년 내내 즐거움이 있는 곳 전주.
축제는 지역의 문화를 이어가고 화합하는 장이다. 음식, 소리, 한지, 풍습 등 문화적 전통에 현대의 문화를 창조해 가는 영화제에 이르기까지 전주는 전통과 현재를 아우르며, 연중 다채로운 축제로 관광객의 발길을 유혹한다.



1 경기전 앞에서 펼쳐지는 무형문화 줄타기공연.

2 한옥마을 거리에서 펼쳐지는 한지문화 축제의 모습.

전주국제영화제 (4.26 ~ 5.4)

전주국제영화제는 자유, 독립, 소통이란 슬로건처럼 주류영화가 보여 오던 형태와 다른 파격적이고 대안적 영화를 관객에게 소개하는 영화제이다. 국내외 저명한 감독과 평론가, 프로듀서 등 국내외 영화인이 전주를 방문하는데 올해는 특히 경력이 풍부한 국내 독립영화감독들의 신작이 많이 소개될 예정이다. 13회째인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절대 잠들 수 없는 매력적인 '불면의 밤'이란 총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밤과 두 번째 밤은 전북대 삼성 문화회관에서, 세 번째 밤은 메가박스 4관과 5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올해는 <영화는 영화다>로 주목 받은 후 <의형제(2010)>, <고지전(2011)>의 잇따른 성공을 거둔 장훈 감독, 일본의 대표 독립영화 감독인 고바야시 마사히로 감독, <팬텀 러브(2007)>, <파멸(2010)> 등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니나 멘케스 감독 등이 전주를 찾을 예정이며, <백야>의 이송희일 감독, <비구니>의 이창재 감독, <아버지 없는 삶>의 김응수 감독, <나팔꽃>의 황철민 감독, <지옥화>의 이상우 감독 등이 '한국 경쟁 부문'에 참가한다.

전주한지문화축제(5.3 ~ 5.6)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닌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하고 전주 한지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는 전주한지문화축제는 1997년에 전주한지축제로 시작하여 1999년부터 전주종이축제로, 2006년에 다시 전주한지문화축제로 변경하였다.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앞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

2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유혹하는 전주비빔밥축제.



조선시대의 한지생활용품 유물전,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과 고문헌전, 닥종이인형전, 수정 한지그림전, 한지패션쇼, 초등학교 한지 그리기대회, 가족문바르기대회, 한솔종이박물관 특별기획전, 사경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한지제작 체험, 한지공예교실, 종이장터, 한지와 전통문화 체험, 청소년 어울마당, 종이 재활용 교실, 종이바수기 시연 및 전시, 한국 전통연 시연 및 전시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올해 그간 전주한옥마을 일원 중심의 축제에서 한지산업지원센터, 영화의 거리와 완주군 대송한지마을까지 축제장을 확대, 지역상생 및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 가는 축제로 기획하였다고 한다.

전주단오제(6.1 ~ 6.24)

단오제는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감던 풍습을 재현하는 전통문화축제로 단오의 전통과 풍속의 복원은 물론 예향 전주의 예술문화 발전

을 위해 열리는 예술제이다. 창포물에 머리감기, 세족, 족욕, 창포풀장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단오절에 즐겨먹던 단오 절기 음식체험, 단오 소원 지달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단오풍류체험, 공연 등이 펼쳐진다.

전주연꽃축제(7.21 ~ 7.28)

전주 도심 속에 숨겨져 자리 잡고 있는 덕진공원에 분홍빛의 연꽃이 만개할 7월이면 덕진 연못에 와서 연꽃의 향기에 취해보길 바란다. 덕진 연못에 피는 연꽃은 예로부터 전주 8경 중 하나로 전국에서 찾아온 사진작가와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연꽃은 1974년에 식재한 홍련으로 전국 어느 곳에 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연꽃의 크기가 크고, 면적도 넓다.

전주세계소리축제(9.13 ~ 9.17)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주한옥마을 등에서 열리는 소리축제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음악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 세계 다양한 음악적 유산과 폭넓게 교류하는 장이다. 특히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영국의 월드뮤직전문지 「송라인즈(Songlines)」가 선정한 '국제 페스티벌 베스트 25'의 하나로 선정되어 한국의 축제를 넘어 세계의 축제로 나아가고 있다. 공식행사와 기획공연, 국내·외 초청 공연, 어린이소리축제, 소리프린지 등 올해는 6개 분야에 모두 300여 회의 공연이 대중들을 찾을 계획이다.

2012전주세계소리축제 슬로건은 '소리 한상 가득'으로, 전라북도의 푸집한 손맛과 인심을 풍성한 소리판과 연결해 '2012 전주세계소리 축제'의 다채로움이 연상되도록 했다.

전주비빔밥축제(9.13 ~ 9.17)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대한민국 대표 음식관광축제로 맛의 고장 전주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한국음식 명소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열리는 전주비빔밥축제에서는 전통음식도 전시하고 다양한 조리경연대회와 한옥마을 김장잔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